

시각문화와 괴테의 색채론

이윤민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박사수료

Goethe's Color theory in the Visual Culture

Yunmin Lee

Ph. D. Candidate, Dept. of Aesthetics & Art History, Yeungnam Univ.

Abstract

본 연구는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괴테의 색채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문화란 시각적 특성을 공유하는 특정한 시대의 문화적 현상이다. 괴테가 주장한 색채지각의 잔상 현상과 유동성의 개념은 시각태도의 주체적 능동성으로서의 시각모더니티이며, 최근의 색채 문화적 상황은 대상의 응시와 자기 동일시를 반복하는 시각대상과 시각주체의 긴밀한 상호 작용으로 이해된다. 괴테가 밝힌 색채의 인간·정서적 필연성은 문화적 혼종과 쌍방향성의 오늘날의 시각 장에서 볼 때, 그 낮은 공간속으로 기꺼이 우리를 이끄는 매혹적인 연결통로로서의 색채속성이며, 이로써 괴테의 『색채론』은 시대를 초월한 색채연구서의 고전임을 알 수 있다.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시각문화란 시각적 특성을 공유하고 시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정한 시대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시각체제를 이룬다. 시각체제는 시각대상과 시각주체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시각구조의 문화적 형식이며, 우리의 가시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광범위한 지각 정보인 색채는 그 시각구조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색채의 새로운 인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괴테의 『색채론』(1810)은 살아있는 인간주체와 객체사이에 일어나는 시각적 상호작용과 그 심미적 영향을 탐구한 색채연구서의 고전이다. 따라서 시각문화적 맥락에서 괴테의 색채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색채의 시각문화적 가치를 고찰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시대적 인지양식으로서의 시각체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괴테의 주요한 색채개념을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최근 시각문화적 상황에서의 색채의 의미를 찾는다.

2. 시각모더니티와 괴테의 색채론

시대적 시각주체의 태도를 보는 것은 곧 시각문화의 변화상을 보는 방법이 된다. 시각주체와 그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는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파생된 심리적 공간의 관계로써 시각적 특징에 의해 전개된다. 도널드 로우는 시대가 다르면 감각의 위계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중세에는 청각과 촉각, 르네상스시대와 신분제 사회에서는 원근법적 공간 내의 표상,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시각의 확장, 20세기는 시각과 청각의 전자문화 이 다섯 시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¹⁾ 시각대상으로서 이미

지의 생산과 소비-제작과 향유-의 사회적 과정의 역사 속에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시각주체의 '바라봄'의 위상전환이 있었으며, 시각모더니티는 전통적인 원근법적 시각체계에서의 시각주체와 대상간의 객관적 거리두기로부터 시각주체가 자주성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그 '바라봄'이 자주성을 확보하게 되는 시각문화적 전환기에 피테의 색채연구가 있었다. 즉 현대적 시각전환에 피테의 『색채론』이 기여한 바로써 이론적 타율에 의존한 시각태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가 체현된 경험적 시각태도라는 것이다. 피테가 『색채론』을 집필한 당시는 뉴턴의 『광학』의 패쇄적이고 인간배타적 색채관념이 주류였다. 피테는 그에 반박하여 색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실례를 섬세한 관찰을 통해 제시하고, 색채의 본질을 자연, 인간, 물질의 통합적 유기체임을 주장함으로써 관찰자의 감각이 색채를 지각하는데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원근법적 시각체계에서의 주체와 대상의 분리와는 달리 피테의 색채탐구는 색채를 시각대상과 시각주체의 긴밀한 작용으로 파악하여 상호작용으로써의 모더니티 속성²⁾을 보여준다.

보들레르가 모더니티란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 우연적인 것이 예술의 절반이며, 그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이다.'³⁾라고 한 것은 피테의 『색채론』에 나타난 색채의 비고정성, 운동, 사라짐 등의 일시성과 움직임의 총체성이라는 범자연적 원리와 일치된다. 피테는 보들레르의 이러한 모더니티개념을 이미 이탈리아의 하늘아래에서 색채를 통해 체득하였고, 색채의 진보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모더니티의 선구자적 면모를 보여 주었다. 유동적이며 주관적인 색채를 관찰하는 이러한 피테의 태도는 보들레르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Flaneur⁴⁾, 즉 자주적 시각주체라고 할 수 있다.

피테의 색채론의 주요개념을 시각 모더니티관점에서 찾는다면, '잔상현상', '양극성과 총체성' 등으

로 설명되는 고정되지 않는 색채의 유동성과 주체의 능동성이다. 이것은 모더니티 시각구조에서의 '신체성'의 개입, 대상과 주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대표할 수 있다. 시각구조의 신체성, 즉 피테의 능동적 색채의식은 시각 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예술의 기존질서였던 외부적 타율에 의한 서사적 재현이 아닌 주체내부의 문제로부터 주체를 이끌어 내어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예술의 자율적 의지를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다.

2.1. 시각의 신체성

피테는 관찰하는 주체외부에 존재하는 요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순수한 시각경험들- 망막의 잔상과 색채현상에 관한 직관-에 몰두하여, '자율적 시각'이라는 관찰자의 적극적인 시각능력을 밝힘으로써, 시각적 생산자로서 '신체의 눈'을 특권화한다.⁵⁾ 피테 역시 오랜 전통적 실험 방법에 따라 카메라 옵스큐라를 자신의 광학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방을 가능한 어둡게 하여, 창 의 셔터에 자유로이 개폐 가능한 직경 3인치 정도의 구멍을 열어둔다.

햇빛이 이 구멍을 통하여 흰색의 표면에 닿도록 해서 관찰자에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들어온 빛의 원을 응시하도록 한다. 그 구멍을 닫은 후 관찰자는 방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응시하라. 그러면 '둥근 형태를 띤 이미지'가 눈앞에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⁶⁾

여기서 '구멍을 닫은 후' 라는 피테의 행위는 카메라 옵스큐라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분을 무효화함으로써 원근법적 시각체계, 즉 인식론적 도식에 시각의 움직임이 의존했던 종전의 시각질서를 부인하고 해체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열린 입구부분을 닫은 후부터의 잔상현상은 암실의 내부, 외부에서 절대 대응물을 가지지 않는, 순수하게 관찰자의 신체에 귀속하는 생리적인 색채임을 보여줌으로써 원근법적 시각체계에서는 포괄할 수 없는 순수한 시각으로서의 '주관적 시각', 즉 주체 자

1) Donald M. Lowe, *History of Bourgeois Perception*, Chicago Univ. Press, 1982

2) Georg Simmel(1858~1918)은 모더니티를 문화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삶의 형식들과 현대인의 정신적 삶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하였다.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역, 새물결, 2005, 참조

3) Charles Baudelaire(1863), *The painter of Modern life*, Phaidon Press, 1995, p.12

4)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며 도시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들레르 '현대생활의 화가'에서 일컫는 현대적 의미의 "산보자이자 사색가"

5) 조나단 크래리, 시각의 근대화- 시각과 시각성, 헬 포스터 역, 최연희 역, 2004, 경성대 출판부, p.71-5

6) Goethe, *Theory of Colour*, trans. Charles Eastlake, 1970, pp.16-17

신에 귀속된 시각체제의 신체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성립된다. 피테가 시도한 카메라 옵스큐라 모델로부터의 단절은 전통적인 원근법적 시각체제가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적 경험의 자발적 생산자로서 순수시각적 주체를 부각시키는 시각모더니티라고 보여 진다.⁷⁾

3. 욕망하는 시각주체와 색채의 상호작용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동요를 겪었던 시각주체는 내부적 분열을 봉합하고 동요를 극복하려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새로운 시각 경험들-사진과 영화, TV-은 원근법적 시각양식에 의거한 코드를 다시 부여하여 재편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익숙한 시각모델로 시각주체에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였다. 초상사진의 대중적 보급과 '자기 동일시'⁸⁾를 유도하는 리얼리즘 영화의 산업화가 그 대표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근법적 코드화'⁹⁾는 권력구조인 경찰과 군대의 눈을 위해 카메라가 시각주체로 전용되어 그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가시세계의 영역까지 시각의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원근법적 코드화는 가시세계를 넘어 비가시영역의 유추를 위한 모델이 되고, 그 확장된 시각장 속에서 시각주체는 분열과 자기 동일시를 반복한다.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의 체제는 이러한 권력의 지배 체제와 원근법적 공간화를 그러한 비가시영역과 동일한 구조의 '응시(gaze)'로 파악한다. 푸코는 완벽한 상태로 재현되지만 실제적 장소가 아닌 또 다른 공간들- 군대, 감옥, 정신병원, 영화관, 박물관, 배 등-을 권력과 지식의 감시와 구속의 체제로 제시하였다. 원근법이 코드화된 전자문화에서의 가상현실과 인터넷속의 세계는 우리에게 제공된 또 하나의 '다른 공간(Other Space)'¹⁰⁾으로서 @는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된

다. 미디어가 원본의 우월적 지위를 흔들며 원본과 복제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최근의 상황은 사실적 재현, 허구적 재현, 실화소설(faction)들이 사회의 '집단적 환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지시대상 없이 시물레이션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또 다른 공간에 처한 시각주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응시'의 개념으로 시각대상, 즉 타자의 위협 앞에 무너지는 주체의 '탈 중심화'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시각주체는 잃어버린 중심의 불안한 시점에서 몸을 정박하기 위한 주체적 시각욕구를 근원적 감각체로 무장한 색채 표상에 의탁한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재현하는 가상현실의 이미지는 시각주체의 '눈'이라는 신체적 개입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통각적 색채감성에 의해 주체를 유도하는 환영적 시각공간이다. 피테는 시각현상의 필요조건으로 '불투명성', 즉 색채의 '흐림'¹¹⁾을 언급하였다. 피테가 말하는 '흐림'이란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둠이 접하는 양극 사이의 불균질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촉각적 물체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촉각의 기층에서 떠오르는 시각세계의 질료적·공간적·청각적인 가능성을 개시하는 것이며, 그 중층성과 '사이'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생성하는 공감각의 '통각적인' 색채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 심리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색채 공간이며, 주체와 대상이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즉 디지털의 코드화에 의한 가상현실의 색채공간은 시각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축되는 통각적 상호작용의 공간이 된다. 이 불안정한 가상의 공간에서 주체를 유혹하고 호명하는 색채는 자기 동일시의 정서적 호소력으로 시각주체의 불안을 몰아내고 미적 쾌를 제공하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듯 부유하는 전자적 신호로서 시각주체의 자기 반영적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Jacques Lacan)의 시각구조에서 욕망하는 주체인 보는 주체는 결핍의 주체이며 대상의 응시, 즉 '바라봄'을 통해 소유를 꿈꾼다. 이미지는 이 주체와 대상이 시각 장에서 교차되는 어느 지점을 향한 시각적 욕망의 환영들이다.¹²⁾ 즉 피테가 말

7) 인상주의 회화는 순수 가시적 세계를 탈 서사적, 현재적 사실에 입각하여 재현함을 조형이념으로 하였고, 그것은 색채의 충실한 표현에 의해 도달할 수 있었으며, 색채주의적 사고는 20세기 추상회화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8) 영화는 카메라의 눈과 관객의 눈을 일치시키므로써 관객을 주체로 위치시킨다. 그것은 영화의 의미작용에 의해 심리적 동일시로 이어지는데 라캉의 시각이론에서의 거울단계와 같은 구조이다.

9)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p.460

10) 미셸 푸코, 전해숙역, 다른 공간에 대하여, Art in Culture, 2000, 8월호 p.117-123

11) Goethe, ibid, pp60-94

12) 라캉은 욕망이론의 구조를 상상계, 상징계가 교차하는 어느 지점을 실재계, 즉 욕망의 환영으로서 이미지로 파악한다.

한 대로 “색채란 내부의 빛과 외부의 빛이 눈을 통해 감응되는 현상이며, 전체 자연이 색채를 통해 시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¹³⁾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이는 보는 주체와 대상과의 유기체적 운동성에 의한 상호 작용의 현상으로서 색채의 환영적 이미지이며, 라캉이 말한 실재계와 유사성을 가진다. 괴테가 본 색채는 생명 또는 자연의 근본현상으로써, 안과 밖, 주(主)와 객(客)의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서 생성되는 부단한 운동성에 의한 유동적 이미지이며, 포스트모던의 시각 장에서 주체와 대상과의 쌍방향성의 시각체제와 유사성을 보여준다.

4. 결론

시각주체는 오늘날에도 분열과 굴절을 거듭하면서 나날히 발전하는 시각테크놀로지의 위용 앞에 그 시각주체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포스트모던의 주체의 상실과 재현의 위기라는 담론 속에도 불구하고, 색채의 역할과 욕구가 증폭되는 시각 문화적 상황 속에 있다. 특히 디지털체제하의 가상현실과 인터넷, 그리고 다문화적 혼종(hybrid)의 상황은 시각주체의 불안을 초래하고, 색채적 사고에 의해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색채욕구를 강하게 드러낸다. 괴테는 색채지각경험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지각 활동을 규명하였고, 색채를 자연과 인간과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적 원현상으로 논증함으로써 시각체제의 구조를 영원한 자연의 총체적 원리로 끌어 올렸다. 모더니티의 확장된 시각 장을 넘어 포스트모던의 환영적 깊이의 공간에 의한 시각 장에서 분열을 극복하려는 시각주체의 자주적 태도는 색채와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해 능동적 시각주체성을 획득하려는 괴테적 시각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윤미애 역,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미셸 푸코, 전해숙 역, 다른 공간에 대하여, Art in Culture, 2000, 8월호
- 조나단 크레리(1990), 관찰자의 기술, 임동근 역, 문화과학사, 1998
-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 진휘연, 재현에서 상호소통으로 :매체의 변화와 거울의 역할,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6, 5호
- 헬 포스터(1988), 시각과 시각성, 최연희 역, 경성대 출판부, 2004
- Charles Baudelaire(1863), The painter of Modern life, Phaidon Press, 1995
- Donald M. Lowe, History of Bourgeois Perception, Chicago Univ. Press, 1982
- Johann Wolfgang von Goethe(1810), Theory of Colours, Translated from the German with notes by C.L. Eastlake, 1840, Introduction by Dean B. Judd, The M.I.T. Press, 1970

13) Goethe, ibid, Introduction.